

# '길 위의 인문학 함께 읽기'

완주군 둔산영어도서관, 문신·함민복 시인 초청 강연  
"문학 통해 삶의 아름다움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

열대야보다 더 뜨거운 시에 대한 열정으로 시인 특강이 연이어 열리고 있다. 둔산영어도서관에서는 9월까지 시인들과 함께 2018년 길 위의 인문학 함께 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회에 걸쳐 운영되는 함께 읽기 프로그램은 이번주 9월 7일 17일 오전 10시 문신 시인, 10월 7일 19일 오후 2시 봉서초등학교에서 함민복 시인의 특강이 열린다. 문신 시인은 2004년 <세계일보>에 등단한 후 시집 <물가죽 북>, <결을 주는 일> 등이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과거에 경험한 말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고 시를 읽으면서 자신의 추억과 기억을 말의 이미

지로 다시 떠올리는 수업을 진행한다. 문학 언어를 통한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연이어 함민복 시인은 1989년 서울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1988년 세계의 문학에 시로 등단했다. 시집 <우울씨의 일일>, <자본주의의 약속>,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말랑말랑한 힘>, <눈물을 자르는 눈꺼풀처럼> 등과, <눈물은 왜 잔가>, <길들은 다 일가친척이다> 등의 산문집, <비뚤물, 예고 짜다> 동시집을 발간했다. 이번 강의에서는 왜 시를 읽어야 하는지, 시는 어디에 있고 왜 써야 하는지에 대해 수강생들과 탐구한다. 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은유법이며 은유를 통해 경

계를 허물고 차별과 구별의 세계에서 평등 대등의 세계로 나아가는 법에 대해 강의한다. 함민복 시인의 강의를 마지막으로 둔산영어도서관의 길 위의 인문학 함께 읽기 프로그램의 1차 주제인 <시크릿 인문학 교실>이 마무리되며 한달간의 방학기간후 8월 21일부터 2차 주제 <시를 읽은 그대에게> 파트가 여행작가 이병률 시인이 그 문을 열어 2달간 이어진다. 문화예술과 오인식 과정은 10회까지 강연동안 뜨거운 호응에 감사드리며 2차시에도 훌륭한 시인들의 명강의가 이어지니 지속적인 참석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둔산영어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063.290.224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원주=이종복 기자

## '수공예 상품 창작 지원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전통문화전당, 금전적 부담으로 상품 개발 망설였던 작가들에게 절호의 기회

한국전통문화전당은 2018 수공예 상품창작 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할 역량 있는 수공예 작가를 오는 8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독특한 아이디어에 자신만의 기술로 새로운 수공예 상품을 개발해 공예 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특히 금전적 부담으로 상품 개발을 망설였던 작가들에게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평가된다. 지난해 사업에서는 80여 명의 수공예 작가와 관련 종사자 중 심사를 통해 최종 15명의 작가를 선정하고 아이그림으로 만드는 패브릭 제품, 짜맞춤 기술을 활용한 어린이용 목공완구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 지원했다. 올해는 2차례의 심사를 통해 총 10개 팀을 선정해 1개 팀(또는 개인)에 3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원하며, 상품개발을 위한 전문가 멘토링 등 우수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치게 된다. 아울러 개발이 완료된 창작 상품은 지난해 선정된 15개 상품과 함께 홍보는 물론 판매가

가능한 전시회가 마련된다. 접수는 한국전통문화전당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고, 최종 선정된 작가는 3개월간 상품을 개발할 수 있



한국전통문화전당은 2018 수공예 상품창작 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할 역량 있는 수공예 작가를 오는 8월 10일까지 모집한다.

는 시간이 주어진다. 강병구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직무대리는 "그동안 상품개발에 애로를 겪어온 공예 작가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롭고 트렌디한 우수 수공예 상품을 개발하고,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대중적 문화상품들을 내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예진흥팀(063-281-1542)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시스

## 도종환 장관 "예술위 독립성 강화·자율성 확대 적극 추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예술위 혁신특별진담팀(TF) 등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사업 추진 시 현장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술계와 소통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예술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은 13일 낮 12시 서울 종로 한 식당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최창주 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예술위원 7명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문체부와 예술위 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 장관은 "최근 문화예술계는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 운동 등으로 큰 시련과 혼란을 겪었다"며 "이럴 때일수록 예술계 현장과 행정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예술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격려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문화예술계와의 지속적인 만남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사람 중심의 문화예술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뉴시스

## 전주문화방송 혼불문학상 전혜정 작가 당선

소설가의 고뇌와 배신감을 밀도 높게 묘사한 작품  
"권력 구조 바라보는 작가의 관점·참신한 발상 돋보여"

전주문화방송(전주MBC)은 제8회 혼불문학상 수상작으로 전혜정 작가의 작품 '독재자 리아민의 다른 삶'이 당선됐다고 최근 밝혔다. '독재자 리아민의 다른 삶'은 독재자의 이중성을 다룬 장편소설로 독재자 리아민으로부터 전기를 부탁받은 한 소설가의 고뇌와 배신감을 밀도 높게 묘사한 작품이다. 문순태 심사위원장은 "권력 구조를 바라보는 작가의 관점, 허구와 진실 사이에서 작가는 과연 어느 쪽에 서야 하는지를 일깨우고 있다"며 "발상이 아주 참신하다"고 평가했다. 전 작가는 지난 1975년 서울에서 태어나 명지대학교 문예창작과 대학원을 수료했다. 이후 2007년 문학동네 신인상 '해협의 빛'으로 등단했으며, 2018년 첫 장편소설인 '첫번째 날'이 출간됐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혼불문학상에는 215편의 장편 소설이 응모했으며, 1·2차 예심을 통해 총 3편이 본심에 올랐다. 대상 수상작에는 상금 5000만원이 수여되며 수상작의 단행본은 오는 9월 말 출간된다. 혼불예제제를 겸한 시상식은 오는 10월 중으로 예정되며, 이날 올해 상반기에 시행한 제1회 혼불문학상 수상작 감상문 공



모전 '혼불의 메아리'에 대한 시상식도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혼불문학상은 전주MBC가 '혼불'의 작가 최명희의 문학혼을 기리기 위해 2011년에 제정했다. /뉴시스

## 문화 소외계층 대상 무료 '객석 나눔'

한옥마을 상설공연, 번사또 생일잔치·놀부가 뒸다 등

전주문화재단 한옥마을 상설공연단은 7~8월 여름 시즌을 맞아 문화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객석 나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등 평소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한옥마을 상설공연단은 올해 상설로 진행하고 있는 2개 공연의 객석 일부(전체 객석의 10% 이내)를 문화 소외계층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해당 공연은 한옥마을 상설공연 '전주마당창극-번사또 생일잔치'와 한옥마을 평일 상설공연 '한옥마을 마당놀이-놀부가 뒸다' 시즌2 공연이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여건 등의 이유로 공연 관람이 어려운 각 기관 및 단체의 신청을 통해 7~8월 중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한옥마을 상

공연단(063-283-9223)으로 하면 된다. 한옥마을 상설공연 관계자는 "이번 객석 나눔이 평소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공연을 통해 색다른 즐거움과 함께 정서적인 여유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옥마을 상설공연 '전주마당창극-번사또 생일잔치'는 오는 10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전주한벽문화관 혼례마당에서 만나볼 수 있다. 8월 혹서기에는 실내공연장인 전주한벽문화관 한벽극장에서 진행된다. 한옥마을 평일 상설공연 '한옥마을 마당놀이-놀부가 뒸다! 시즌2'는 10월 12일까지 전주소리문화관 야외마당에서 펼쳐진다. 7·9·10월에는 매주 금요일, 8월에는 매주 목·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린다. /뉴시스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